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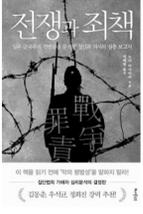
일본은 왜 침략전쟁을 사죄하지 못하는가

전쟁과 죄책

노다 마사아키 지음·서혜영 옮김

“중국 인민에게 했던 행위는 죄송스럽고, 오로지 사죄하는 바입니다.”

암 투병을 하던 한 71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1주일 전, 딸에게 묘비에 새겨달라며 종이 쪽지를 건넸다. 유언처럼 남긴 쪽지에는 12년8개월 동안의 직업군인(헌병) 이력과 함께 침략전쟁을 사죄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큰아버지와 오빠의 반대로 사죄 문구를 비석에 새기지 못했다. 전후 세대인 딸은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자 했지만 아버지의 젊은 시절 빈 퍼즐을 채울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침략전쟁에 대해 사죄한 아버지를 소재로 한 소설 ‘슬픈 강’을 쓴 작자 구라하시 아야코의 실화다.



지난 6일 히로시마 원폭투하 78주년을 맞아 일본 히로시마현 ‘원폭 돔’ (옛 산업진흥관) 옆 강물에 종이등을 띄우며 희생자들을 기리는 일본인들. /연합뉴스

고 무엇을 애도하고 있는가, 일본군의 권위주의는 전후 일본 사회에 어떻게 형태를 바꾸어 이어져 왔는가 등이었다. 잔학한 전쟁 행위와 그 전쟁에 찬동한 일을 반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에서 ‘시켜서 한 전쟁’에서 ‘내가 한 전쟁’으로, 주체를 되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체 해부실험을 하는 군의관, 중국인을 대상으로 신병들에게 총검훈련을 시키는 중대장, 중국군 포로를 참수해 버리는 소대장, 체포한 중국인·조선인을 재판 없이 731부대로 넘겨버리는 헌병... 이러한 잔혹한 행위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이나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와 복종에 대한 실험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들 모두는 전범으로 붙잡혀 중국 감옥에 갇힐 때까지도 자신들의 거리낌없이 벌였던 행위에 대해 전쟁범죄로 인지하지 못했고,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저자는 전범들의 정신분석에서 한발 나아가 과거를 외면하는 일본사회를 진단한다. 일본은 종전 후 독일과

달리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다. 부모세대는 과거 일에 침묵했고, 전후세대인 자녀들은 묻지 않았다. 저자는 “내가 죄의식을 묻는 것은, 타자의 슬픔을 감싸안는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독일 역시 패전후 곧바로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독일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1945년 8월 한 강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죄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이듬해 저술한 ‘죄책론’에서 죄의 개념을 4가지(형벌상의 죄, 정치상의 죄, 도덕상의 죄, 형이상상의 죄)로 구분하고 나치 시기 독일인들의 죄를 추궁했다.

신간 ‘전쟁과 죄책’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현재 일본의 밑바닥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에서 활동했던 전범 위주로 구성돼 식민지 조선에서 자행했던 일제의 전쟁범죄가 전혀 다루지 않은 점은 아쉽다. <드라곤우주·1만98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전쟁과 평화, 사랑과 죽음: 우로보로스과 탈(脫)우로보로스=자기순환성 혹은 파괴성을 갖고 무한하게 순환하는 ‘원융(圓融) 현상’은 그동안 천체의 공전, 생사의 순환, 여성과 젠더 등 다방면의 핵심 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책은 ‘죽음=재생’, ‘여성=죽음=부활’과 같은 종래의 등식에 반기를 들고 탈우로보로스적 사유를 제안한다. 그러면서 정합성을 추구하는 변증법적 논리, 동일성의 순환론적 사고 체계 등이 오히려 인류문화사에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해체적 사유를 마련한다. <도서출판정승재·3만5000원>



▲몰리력 힘=기본적인 능력이나 마찰력부터 지레와 외팔보, 관성 모멘트 등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힘에 대해 방대한 지식을 경유하며 설명한다. 저자는 심리학, 인문학, 물리학의 결합이라는 ‘공학적 글쓰기’를 통해 ‘Power’와 ‘Force’를 구분하도록 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전개형 구조나 의인화 모형, 오벨리스크나 아스파라거스 등 힘과 얽힌 다양한 이슈들을 예시로 들어 페이지를 넘기는 재미를 더한다. <서해문집·2만2000원>

▲나도 이 나이는 처음이라=노화는 곧 인류의 저주라는 도식적인 이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행적 시간의 흐름을 슬프게 만든다. 그러나 육체의 나이들은 누구나 마주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그 속에서

무기력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은 극복 가능하다는 사실은 희망이 될 것이다. 나이 들은 본령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준다. <담앤북스·1만6800원>

▲필립 코틀러 마케팅의 미래=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마케팅 방식 또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마케팅의 전략과 방식은 어떻게 될까? 저자는 ‘윌니하우스 모델’이 하나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모델은 마케팅에 있어 조직 전반의 통합을 강조하는 방법론인데 재무와 마케팅, 기술과 휴머니티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매일경제신문사·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뿌뿌는 준비됐어! = ‘놀자’와 ‘산책하자’의 공통점은 아이들과 강아지를 들뜨게 한다는 것. 주인공 뿌뿌는 엉뚱 발랄한 세 아이 ‘인도양’, ‘조에’, ‘라울’과 함께 온 동네를 누비는 강아지다. 아이들은 뿌뿌의 첫돌 생일잔치를 기념해 다함께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마법의 열쇠로 신비로운 공간들을 찾아낸다. 성장기 아이들이 학원가 발딩 숲을 벗어나 자유롭게 싶은 마음을 그린 이야기. <세계절·1만2000원>

을 끈다. 아구가 끝나면 혼자서 상상 속 아구 대회까지 열면서 우주 최강팀의 일원이 되는 데. 아직까진 한심화는 실리나는 아구장면과 운동에 빠져드는 아이들의 즐거움을 담아낸다. <뜨인돌출판·1만5000원>

▲아구쟁이=어린이의 일상에 새로움을 불어넣을 계기가 되는 ‘아구’. 주인공 찬이는 텔레비전을 봐도 강아지와 놀아도 하루하루 지루하기만 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구경기를 보게 되면서 온종일 ‘흙만랑’의 꿈

▲뚝뚝! 들어기도 뭉개요? =누구나 무리 외곽 안에 끼지 못하는 소외받는 기분을 느낀다. 미운아기 오리부터 거북이, 기린, 멧돼지, 코끼리는 동물들의 그룹에 들고 싶지만 저마다 다른 생각으로 인해 거부당한다. 한편 소외된 동물들은 서로 생김은 다르더라도 편견을 깨고 친구가 되는데... 동화 ‘미운아기 오리’, ‘아기 돼지 삼형제’ 등을 오마주해 낯설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지구의아침·1만4000원>

가족제도에 숨은 차별과 불평등 추적한 ‘한국 가족 해부도’

가족각본

김지혜 지음



일상 속의 혐오를 날카롭게 들여다본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느껴왔던 것들에 의문을 갖게 했다. 10만 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선량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차별과 혐오의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에서 소수자, 인권, 차별 문제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김지혜 교수의 두번째 책 ‘가족 각본’이 나왔다. 책은 가족제도에 숨은 차별과 그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을 추적한 ‘한국 가족 해부도’다. 저자는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가족 제

도의 불합리함과 그로 인한 불평등은 개인의 책임이나 운으로 돌려진다”며 “사회제도이자 구조로서 가족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왜 결혼을 출산의 필수조건이라 여기며, 성별이 같은 사람이 왜 가족을 이룰 수 없고, 부와 모가 양육하지 않는 아이는 왜 ‘어쩔 수 없이’ 불행할까. 책은 가족은 한국인의 삶을 각본처럼 세세하게 규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며 차별을 재생산하는 제도이자 구조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저자는 다양한 연구와 판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견고한 각본’ 같은 ‘가족’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저자는 “가족각본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정해진 각본대로 따르는 걸 평범한 삶이라고 여기고 질문조차 않는다. 또 버겁게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느라 가족각본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살피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자들의 등장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가족각본’에 혼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에, 책은 성소수자 이슈가 만들어내는 균열을 쫓아 한국의 가족 제도를 추적한다. 1장 ‘왜 며느리가 남자면 안될까?’에서는 가족각본에 부여된 며느리의 역할은 무엇이고, 왜 하필 여성에게 그 역할을 안겼는지 질문한다. 2장 ‘결혼과 출산의 절대 공식’에서는 결혼을 하면 출산하는 게 당연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공식을 낯설게 바라보며 동성 결혼과 비혼출산 등 ‘금기 너머’의 세상을 바라본다. 4장 ‘역할은 성별에 따라 평등하게?’에서는 아이에겐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 한다는 익숙한 생각을 들추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현실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성별로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에서 성평등의 실현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이어 가족 질서를 유지하는 규율로 작동한 성교육, 가족각본을 공식화하는 법제도를 살피고 마지막 7장에서는 가족각본을 넘어선 가족 제도를 상상해 본다. <창비·1만7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8%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릉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